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추진력

대니 매컬리스

갑자기, 폭발이 멈췄다.

긴 시간 동안 괴상한 정적이 군림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전장을 뒤덮은 희고 뿌연 연기가 잠잠한 공기 속에서 느릿하게 떠올랐다. 그 아래에서는 마치 잔혹한 마술사의 장난처럼, 검게 그을린 전장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토스의 공격은 잔인하리만큼 철저했다. 한때는 살아 숨쉬는 해병이었던 전투복이 다양한 방법으로 파괴되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어떤 이는 입자 분열기에 그을리고, 추적자의 가차없는 광선에 꿰뚫렸다. 다른 이는 조금 더 외과 수술 같은 최후를 맞았다. 타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광전사의 사이오닉 검에 조각조각 난 것이다. 모두 목숨을 잃었다.

아니, 거의 모두.

켈모리안 야영지를 뒤덮은 정적 속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나씩 하나씩, 대열 뒤쪽에서 병사들이 앞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육중한 전투복으로 중무장한 불곰들이 느릿하게 걸어왔다. 검게 그을린 채 빛나는 지옥 화염방사기를 질질 끄는 화염방사병도 있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시설이 뒤틀린 잔해가 되어버린 것처럼, 짙어졌던 공격 대형이 여기저기 이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다. 아직 숨 쉬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겐 승리였다.

마리우스 블랙우드 대위는 이 광경을 전혀 보지 못했다. 달리는 그의 공성 전차 옆으로 모리안의 기이한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붉은 흙먼지가 사방으로 끝없이 날리는 가운데, 마리우스는 정면의 좁고 답답한 창에만 집중했다. 요새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경보 소리 대신 그에게는 자기 아래의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적군이 퇴각 중입니다."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제나처럼 인공적인, 중앙 사령부에서 전송된 로봇 목소리였다. "모든 분대는 소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주 목표 알파. 방어선 이탈 직전..."

마리우스는 엄지손가락으로 헤드셋의 전원을 눌러, 끝없이 이어질 기계의 쓸데없는 조작거림을 차단했다. 아래를 보지도 않고,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기어를 감싸 쥐었다. 굉음과 함께 기어가 바뀌며 아크라이트 전차가 짧은 순간 요동치고, 진홍색 흙먼지 구름을 피우며 전진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이 광경도 보지 못했다. 그는 거신만 보고 있었다.

그야말로 거대했다. 엉망이 된 암울한 풍경을 배경으로 무시무시한 괴물의 윤곽이 드러났다. 마리우스는 퇴각하는 거신의 거미 같은 길쭉한 다리를 쳐다보았다. 그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머리는 후퇴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뒤로 돌아가 있었다. 거신은 아직 사거리 밖에 있었다. 마리우스는 자기 공성 전차로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 가지 자그마한 차이만 없었다면.

거신은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 외톨이 보행 로봇은 처음 시설을 공격했을 때에는 지니고 있었을 속도와 우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손상을 입은 것이다. 표적 화면에서 줌을 당겨 살펴보니, 다리 하나를 심하게 저는 것이 보였다.

로봇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다리가 뒤에서 무겁게 질질 끌렸다.

마리우스는 엔진 출력을 높였다. 저 멀리에서는 빈 들판이 어둡게 펼쳐진 빼죽빼죽한 산맥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거신이 그곳에 닿기 전에 따라잡아야 할 터였다. 마리우스는 십자선을 목표물에 고정시켰다. 그의 눈길이 아래쪽에서 깜박이는 거리 표시기로 향했다. 하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 있는 콘솔에서 흰 불빛이 다급하게 깜박였다. 마리우스는 최대한 그 신호를 무시하려고 애썼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엔 한숨을 내쉬고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다. 금이 간 더러운 화면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블랙우드!" 중령이 고함쳤다. "지금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앞으로요." 마리우스가 신랄한 어투로 대답했다.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앞은 개뿔." 중령이 짜증을 냈다. 깨지고 더러워진 화면으로도 그녀의 푸른 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파티는 끝났다, 대위. 당장 돌아와. 우린 명령을..."

아무 조짐 없이 밝은 폭발이 일어나 공성 전차를 뒤흔들었다. 강착 장치에 있는 유압 발생기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해 주었지만, 그래도 마리우스의 머리가 앞에 있는 콘솔과 진한 만남을 가지는 걸 막지는 못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헝클어진 검은 머리를 파고들었다. 꺼낸 손가락은 피에 뒤덮여 있었다.

"적은 퇴각 중인 줄 알았습시다만!" 마리우스가 창을 통해 지상을 훑어보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이 전차를 타고 그렇게 많은 임무를 완료했으면서도, 이 역전용사는 센서 화면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있지." 중령이 일갈했다. "하지만 넌 너무 앞에 있다. 퇴각하는 낙오자들한테 들이대고 있다고, 대위. 혼자 너무 앞에..."

다시 한 번 충격이 그의 전차를 뒤흔들었다. 이번엔 살짝 빛나간 공격이었다. 방향을 틀어 마리우스는 새 적을 바라보았다. 추적자 한 기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달아나며 전차를 공격하고 있었다. 걷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다리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마리우스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지금쯤이면 추적자는 점멸로 자신의 로봇 동료들과 합류했어야 했다. 어찌면 어딘가 망가졌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마리우스는 추적자에게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할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다.

그는 행동했다. 추적자는 이미 마리우스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마리우스는 자신의 기계와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다. 덕분에 그는 거의 생각과 동시에 조종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전차는 그의 조종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전차가 크게 미끄러지고, 마리우스는 추적자가 시야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오른발로 반대쪽 안정화 페달을 세게 밟았다. 전차는 굉음과 함께 요동치며, 순식간에 미끄러지기를 멈추었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앞으로 굴러갔다.

그 추진력을 유지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잃으면, 넌 끝장이야.*

시오네였다. 또. 마리우스는 움찔 놀라며 더러운 엄지와 검지로 관자놀이를 꼭 눌렀다. "지금은 안 돼, 이 친구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 좀 바쁘다고."

추적자의 몸뚱이가 앞으로 꺾 돌아갔다. 달아나기 가장 좋은 방향을 계산하는 듯했다. 다시 뒤로 돈 추적자를 60 톤이 넘는 강철이 덮쳤다. 적은 재빨리 분열기를 겨누어 전차에 가까스로 한 방을 먹였지만, 이미 마리우스의 손가락이 80mm 포의 방아쇠를 파고들고 있었다. 2 연장 포는 남은 방어막을 뚫고 로봇을 조각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공성 전차가 그 망가진 뼈대를 밟고 지나갔다.

마리우스는 발밑에서 금속이 우그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만족감을 느꼈다. 후면 HUD 를 보니 보행 로봇의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보였다. 적어도 추적자는 죽는 것답게 죽는다. 으스스한 불꽃을 피우며 사라지는 광전사와 달리. 문득 소름이 끼쳤다. 광전사가 죽는 광경은 언제나 그를 오싹하게 했다.

"잘했다." 통신기에서 중령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며 흘러나왔다. 하지만 빈정거리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래, 충분히 즐겼겠지, 대위. 이제 방향을 돌려. 당장!"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엄청나게 엄격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리우스는 이미 거신을 향해 전차를 돌리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마이크를 켜다. "금방 복귀하겠습니다." 그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전차는 다시 한 번 최고 속도에 도달해, 먼지를 피워 올리며 붉은 땅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긴장을 풀었다. 엔진에서 들려오는 괴성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당장 복귀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나!" 중령이 말을 이었다. "네가 뭘 하려는지 알지만, 저놈을 따라잡을 방법은 없어.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말했다. "방사능 수치가 아직 위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리우스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길한 검은 구름이 분홍빛 하늘에 미동도 없이 걸려 있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술적 폭격이 남긴 유일한 자취였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유령 요원 하나가 적진 깊이 침투했다. 어쩌면 너무 깊이. 통신에서는 그 불쌍한 자식이 핵 미사일을 부르다가 인생 종쳤다는 소문이 오갔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마리우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지키라고 명령받은 켈모리안 거주지는 공식적으로는 원격 채광 기지 4 호라고 알려진 곳이었다. 이 행성에 있는 다른 광산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광산이었을 뿐이다. 사방 어디에도 거칠 게 없는, 황량한 먼지 바다에 올라앉은 광산이었다. 사실 그것 때문에 "4 호 기지"는 오랫동안 "사망 기지"라고 불려 왔다.

광부들이 떠난 후, 사망 기지는 이상할 정도로 요새화되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지키고 있는 것처럼.

프로토스가 그곳에 쏟아부은 화력을 보면, 뭘지 몰라도 프로토스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인 듯했다.

마리우스가 알 바는 아니었다. 그는 이런 세세한 일들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아는 건 오로지 그 공격이 시작부터 맹렬했다는 것이다. 육중한 거신 세 기가 프로토스 지상군이 벌인 최초의 학살을 지원했다. 마리우스는 거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깊은 인상이 각인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거대한 로봇은 섬뜩하게 우뚝 서서 전장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굽어보며, 초고온 열 광선으로 전쟁터를 불타는 조각으로 분해해 버렸다.

그 괴물 중 두 기는 결국 쓰러졌다. 하나는 바이킹 편대 하나와, 세고 싶지도 않을 만큼 많은 조종사들이 죽음으로 달성한 위업이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골리앗 한 팀이 역시 자신들을 희생해 나머지 하나를 쓰러뜨렸다. 그 병사들의 죽음은 특히 끔찍했다. 동체가 녹아내리며 몸 주변에서 액체가 되어버리는 동안 그들이 토해내던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직도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우스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끔찍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었지만 마리우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마리우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두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들은 웃었다. 장난을 쳤다. 모든 것에 대해 농담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젊었다. 미친 듯이 젊었다. 오랜 친구도 아니면서 죽마고우처럼 어울려 다녔고, 그게 가장 마리우스를 열 받게 했다.

어딜 가든 똑같았다. 변경의 어느 조그만 행성에 발을 들여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는 대놓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리우스가 너무 위태롭게 행동하며 동료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장에서 그는 무모하고, 용감하고, 위험했다. 상관 한 명은 심지어 그를 피에 굶주린 늑대라고 부른 적도 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우스는 상관을 거의 때려눕힐 뻔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은 자신에게 잘 맞는 말이었다.

물론, 가끔은 그를 무리에 끌어들이려는 이들이 나타났다. 마리우스의 역할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전쟁에 닳고 닳은 백전노장으로서 젊은 전우들에게 그의 지식과, 아버지 같은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이다. 언더리 나게 반복되는 일이었다. 그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마리우스는 가차없이 모든 기대를 짓밟았다.

결국엔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제 갈 길을 갔다. 그들은 연대감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고, 전장에서 형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우스의* 친구가 아니었다. *마리우스의* 형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리우스의 형제들은 다 죽었으니까.

스툴츠푸즈, 톨맨, 마시니엑. 시오네. 모두 죽었다. 처음에 마리우스는 전쟁을 탕했다. 프로토스와 그들의 무시무시한 무기, 끝이 없는 듯한 저그 무리. 가슴 속에서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적에 대한 증오가 들어왔어, 친구들이 남기고 간 공허를 메웠다. 하지만, 백전노장이 흔히 그러듯이, 마리우스 블랙우드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적은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마주한 그 적들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적은 시간이었다.

시간이 그의 친구들을 앗아갔다. 시간이 친구들을 지우고, 그들을 기억할 사람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그 존재를 지워버렸다. 다섯 명 중 마리우스만이 남았다. 마리우스가 죽으면?

그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깜빡이는 붉은 경보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냈다. 마리우스는 다른 버튼을 눌러, 아크라이트 전차의 엔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식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훨씬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기계를 몰아 보았고,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혹사시켜 보았다. 이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기술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전차가 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앞쪽에 있는 그의 목표물이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망가진 다리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놈의 뒤쪽에서는 꾸준하게 흠먼지가 피어올라, 다리가 끌린 자국이 분명하게 보였다. 바람이 없는 이 행성의 환경 덕분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이 그 거대한 보행 로봇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마리우스에게 흔적은 필요 없었다. 제대로 된 한 방만 필요할 뿐이었다.

"대위!" 통신기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돌아와!"

통신 신호가 이제 약해지고 있었다. 전투 초반에 증폭 장치가 작살났다는 게 갑자기 기억났다.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기지의 통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성가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터였다.

"블랙우..."

문득 마리우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잖습니까!" 마리우스는 중령의 말을 끊으며 최대한 사납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도망가게 놔두란 말입니까?"

끝내주는 연기였다. 자신이 자랑스러울 지경이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통신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뒤이어 흘러나온 목소리는 침착하고 감정이 없었다.

"좋다." 중령은 체념한 듯 말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되도 난 모른다."

"물론입니다."

화면에 신호가 깜박여 목표물이 방향을 바꾸었음을 알렸다. 웬지 거신이 이제 모로 이동하고 있었다. 놈을 가로막으려고 진로를 바꾸면서 창을 훑어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동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단단한 흙바닥에 언덕 몇 개가 솟아 있었다. 거신은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을 높이였지만, 공성 전차를 멈추기엔 충분할 정도로 가파른 언덕이었다. 마리우스는 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고 앞쪽의 콘솔에 있는 일련의 버튼을 눌렀다.

HUD 에 홀로그램 이미지가 나타나 주위 지형을 3-D 로 보여주었다. 그는 언덕을 확대해 이미지를 돌려가며 올라갈 길이 있는지 확인했다. 30 초쯤 후, 그는 길을 찾아냈다. 거신이 언덕에 진입할 지점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위투성이 비탈을 올라가면 언덕 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사는 급했다. 사실 위험할 정도로 가파른 경사였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비탈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마리우스는 팔을 들어올려 눈가로 흐르는 비지땀을 닦아냈다. 전차 안은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더웠다. 오래전 그는 아크라이트 전차의 내부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공기 조절은 엔진에 부담을 주었고, 무거운 공기 압축기는 그에게는 불필요한 무게일 뿐이었다. 뜨거운 건 참을 수 있었다. 약간은 뒤틀린 방식으로, 마리우스는 심지어 그 열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만큼 전차는 가벼워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안락함을 버리고 성능을 높이는 건 마리우스가 낡은 아크라이트 전차에 한 많은 개조 작업 중 하나일 뿐이다. 속으로 실실 웃으며, 마리우스는 수리공의 손에서 플라스마 토치를 낚아채 전차 정면에 창을 뚫던 날을 떠올렸다. 그가 15 센티미터 두께의 신소재 강철 동체에 뚫은 구멍을 본 상관들은 점심 먹은 걸 거의 토할 뻔 했다. 하지만 한바탕 혼란 후에는 그것도 그가 얻어낸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되었을 뿐이다.

지금 마리우스가 응시하고 있는 창이 바로 그때 만든 창이다. 오래전에 두꺼운 플라스틸도 끼워 넣었다. 거신은 언덕에 접근하고 있었다. 손상을 입었음에도 기묘하게 아름다웠다. 각이 잡힌 매끄러운 동체에는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진짜 정체인 끔찍한 전쟁 병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 작품같이 보였다. 유령 같은 푸른 불빛이 안쪽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앞아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거야, 아니면 날려 버릴 거야? 다시 시오네의 목소리였다. 마리우스는 고개를 숙였다. 더러운 장화에 무거운 시선이 꽂혔다.

날마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들거릴 만큼 장화를 손질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었다. 희미하게. 그들은 모두 가슴 저리게 젊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맑은 얼굴의 어린애들이었다. 편견도 없고, 세파에 찌들지도 않았고,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에는 하지 못할 게 없었다.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 다섯은 언제나 기쁨을 함께했다. 슬픔은 그 시절엔 존재하지 않았고, 그걸로 좋았다. 그들은 진정한 형제였고, 항상 서로를 지켰고, 불의 시험에서 살아남도록 서로를 도왔다. 소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연락하며 지내고, 매년, 혹은 그보다 많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때 세드에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다.

세드는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곳이었다. 사일로 근처의 망가진 변전소 고틀머리에 처박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생긴 바였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작전을 수행한 곳이었고, 따라서 특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바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

세드는 마리우스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단 한 가지였다. 불타는 지옥에서 보내는 그 세월 동안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무엇이였다. 끊임없이 변하는 병사의 삶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며 빛나는 어떤 것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변했다. 하나씩 하나씩, 여행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처음은 스톨츠포즈였다. 나중에 듣기론 서른 살 생일 바로 전날에 할로우 포인트 탄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했다. 어떤 바보 같은 반란에서 편을 잘못 택한 모양이였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아니었다. 스톨츠포즈는 사랑스럽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영리하지는 않았다.

몇 년 후에는 차 행성 근처 어딘가에서 마시니액이 행방불명됐다. 그후 몇 년은 평화로웠다, 톨맨이 뒤를 이었다. 무슨 미치광이 용병 집단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목숨을 잃었다.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다... 뭔가 엄청나게 더러운 거래가 실패했다던가, 뭐 그런 얘기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마리우스에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빌리 톨맨은 호탕한 사람이었다. 설쳐대며 대부분의 술을 쏟았고,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겼고, 가장 예쁜 여자들을 침대로 끌어들이었다. 말은 안 했지만 그가 무리의 대장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정말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빌리였다.

결국엔 마리우스와 시오네만 남았다. 오랫동안 그들은 전통을 지켰다. 만나고, 추억을 나누고, 심지어는 죽은 동료들을 위해 건배를 하기도 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마리우스에겐 상관없었다. 세드에 가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았다.

그런데, 일 년 후, 시오네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시오네는 아군의 공격에 죽은 듯했다. 크루시오 전차 조종사가 조준을 멍청하게 해서, 초고온 텅스텐 포탄 세례를 시오네의 부대가 거의 다 맞은 것이다. 심지어 시체도 찾을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그 기억에 눈을 질끈 감았다. 부대 지휘관들은 최고의 조종사 중 하나인 마리우스가 어쩌서 아크라이트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계속해서 거부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되었을 때에도 블랙우드는 이를 거부해, 사단 내 거의 모든 농담의 대상이 되었다. 그후, 시간이 흘러 들어온 젊은 신병들은 그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완고하고 과거에 빠져 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화를 거부하는 화석으로 보았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시오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리우스는 자기가 왜 크루시오 전차 안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다.

세드를 방문한 건 5 년 전 이 달이 마지막이었다. 마리우스는 친구를 위해 마지막 맥주를 주문하고, 건너편의 빈자리에 놓고, 자기 맥주를 비웠다. 그리고는 떠났다. 그렇게 간단했다. 그 마지막은. 그는 문가에서 한 번 더 뒤돌아, 다섯 개의 낡은 의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온기와 웃음, 생기로 채워졌던 자리들을. 이제 그 의자들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가 막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텐더는 시오네의 맥주를 차가운 철로 된 배수구에 버리고 있었다. 친구가 결코 마시지 못한 마지막 맥주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없어졌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차가 임시 목적지에 도착하자 부드럽게 경보가 울렸다. 마리우스는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HUD 로 볼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보였고, 열 배는 더 바위투성이인 것처럼 느껴졌다. 전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튀어 올랐고, 조종은 커녕 운전석을 지키는 것만도 힘들었다.

딱 한 번, 전차 조종사 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차가 뒤집힌 적이 있었다. 정말 불쾌한 경험이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그때는 견인 케이블과 비웃음 조금으로 끝날 간단한 문제였다. 곤혹스러운

몇 분이 지난 후 전차는 다시 똑바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차가 뒤집힌 거북이처럼 되어 버린다면? 아주 심각한 결말이 생길 터였다. 거신이 방향을 바꿔 그에게 광선을 겨눌 수도 있었다. 해치가 광 하고 닫히면 그는 안에 갇힌 채, 움직일 수도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을 터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이 어떨지 상상했다. 하얗게 타오르는 저 무시무시한 광선을 맞고 전차가 뒤흔들리고, 이미 참기 힘들 정도인 조종석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마리우스는 엉덩이끼에 믿음직하게 매달려 있는 C-7 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전차가 뒤집힌 바로 다음날에 이 권총을 산 건 우연이 아니었다.

경사는 점점 더 급격해졌다. 50 도 지점을 지나가며 마리우스는 기어를 두 단 내리고, 회전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다. 최고 60 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다. *어쩌면* 65 도도. 그보다 더 가파르면 그는 똑바로 뒤로 넘어가, 전차가 속수무책으로 비탈길 입구로 굴러가는 동안 그 안에서 인간 핀볼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튕 것이다.

전차는 전진하며 빠죽한 바위와 자갈을 뺏어냈고, 바깥의 소음은 점점 심해져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돌은 땅을 집어삼키고, 전차를 앞으로 위로 밀쳐내며 강철과 마찰해 끔찍한 비명 소리를 냈다. 전차 안에서 마리우스는 무게중심이 마구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뱃속이 뒤틀렸다. 공포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팠다. 그때, 병적일 정도의 안도감과 함께 언덕 꼭대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어를 마지막 단으로 힘주어 내릴 때 자세는 63 도의 경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차는 포신을 하늘로 향한 채 앞쪽으로 휘청거리며 언덕마루 가장자리를 넘었다. 전차 뒤쪽이 언덕을 넘어오지 못해, 캐터필러가 디딜 곳을 잃고 헛돌며 0.5 미터 정도 뒤로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전차는 굉음을 울리며 언덕 위 평평한 곳에 고꾸라지듯 올라섰다.

앞쪽에 이는 먼지 구름 사이로 마리우스는 재빨리 자신의 사냥감을 찾았다. 비탈길을 타려고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거리가 약간 벌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였다. 거신은 상처 입은 커다란 곤충처럼 여전히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다. 거신이 그를 응시하는 듯했다.

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시오네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르지만, 마리우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누구의 목소리든, 그가 지금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깨달음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함께 찾아왔다.

물론, 그가 언제나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한때는 마리우스도 자기 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커다란 강철 콘솔 모서리의 빈 공간을 음울하게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직사각형 윤곽을 겨우 찾아냈다. 너무 희미해서 이제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때 거기엔 사진이 한 장 꽃혀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인생을 열 번은 산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오래전에 없어진 사진이다.

한나.

인생의 실패 중 하나.

그녀가 마리우스의 "단 하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웃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그녀는 확실히 특별했다.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시도한 유일한 일, 어설프게나마 유지하려고 애쓴 유일한 관계였다.

그들은 마리우스가 샬로에서 근무하던 때, 아직 그의 인생이 겉보기엔 정상적이던 때에 한 어촌에서 만났다. 한나는 마리우스처럼 젊었지만 더 밝고, 똑똑하고, 눈에 띄게 예뻐다.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벌꿀 같은 빛깔이었다. 마리우스는 그녀에게 깊이 빠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홉 개의 행성을 오가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에게 허락되기에는 너무 깊은 감정이었다. 의무의 부름과 양립하기 어려운.

마리우스는 기름으로 얼룩진 손가락으로 사진이 있던 자리를 문질렀다. 사진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한나는 호수 앞에 서서 활짝 웃고 있다. 커다란 노란 꽃을 머리에 장식한 채로. 그녀는 그날 마리우스를 뱃놀이 하는 데 데려갔었다. 하필이면.

비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여자, 사진...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갑자기 밝게 타오르는 눈부신 노란 빛이 번쩍여, 마리우스는 본능적으로 한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작고 흐릿한 창을 통해서도 그 빛은 앞이 안 보일 만큼 강렬했다.

바로 앞에서, 거신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가늘고 긴 머리 양쪽에서 커다란 포탑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적이 그의 전차를 녹아내린 금속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갑자기 떠올리고 급히 전차를 세웠다. 하지만 거신이 다시 광선을 쏘아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직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깨달았다.

보행 로봇의 2 연장 열 광선이 거듭해서 하늘을 갈랐다. 광선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처럼 행성의 흙바닥을 파고들고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바닥을 휩쓸어, 녹아내린 깊은 틈을 만들었다. 동시에 마리우스는 거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뜨겁게 빛나는 협곡으로 공성 전차가 요동치며 최고 속도로 달려갔다. 아크라이트 전차의 뼈대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안정화 시스템이 있었지만, 어차피 갈라진 틈이 적어 큰 역할은 하지 못할 터였다. 마리우스는 파괴된 지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전차를 몰려고 안간힘을 썼고, 전차는 격렬하게 앞뒤로 덜컹거리며 전진했다.

거신은 계속해서 광선을 쏘아댔다. 마리우스는 광선이 보행 로봇 뒤로 흠을 파는 걸 보며 위험 지대 바깥쪽으로 전차를 몰고 갔다. 그 파괴의 선 너머에서만 달리려면 거신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터였다. 더는 목표물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렇다 해도, 아크라이트 전차는 여전히 거신에 접근 중이었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깜빡이는 불빛 두 개가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며 마리우스의 주의를 끌었다. 후방 거리 경보였다. 너무 멀리까지 나와, 채광 시설의 구닥다리 통신 시설이 작동하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원한대도 통신으로 마리우스를 부를 수 없다.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슨 상관이라.

사실 한참 전부터 아무것도 마리우스에겐 상관없었다. 행복이란 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요즘에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이란 만족감 정도였고, 그마저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인 군사 활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나 느낄 수 있었다. 마리우스는 승진, 보직 변경, 심지어 전역의 기회까지도 수도 없이 거절했다. 그가 계속할 수 있는, 신경 쓰는 일은 오로지 다음엔 누구와 어디에서 싸우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마리우스는 이제 오로지 전투의 흥분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겪었다.

수많은 적을 처치했다.

그는 덜컥거리는 전차 안에서 히죽거렸다. 처치한 적의 수를 세는 건 그들이 처음부터 했던 짓이었다. 다 함께 되살려낸 구시대의 전통이었다. 시작은 다섯 모두 아직 보병이던 시절, 빌리가 헬멧에 처치 횟수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처치 횟수를 세는 건 친구 사이의 선의의 경쟁이 되었다. 해가 가면서 그 수가 너무 커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리우스의 공성 전차 측면은 그런 표시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저그, 프로토스, 심지어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했던 테란까지, 자신이 처치한 모든 적을 표시했다. 웅웅거리는 전쟁 병기를 감싼 신소재 강철 위에는 그가 거둔 승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레이저로 공들여 새겨져 있었다.

적을 처치하는 게 그의 전리품이었다. 그의 친구였다.

그에게 남은 모든 것이었다.

전차는 좌우로 방향을 마구 바꾸며 먼지 이는 평원을 질주했다. 마리우스는 갈라진 땅의 경계 바로 바깥에서 전차가 달리도록 했다. 열기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인지, 혹은 자기의 계획이 무의미하단 걸 깨달아서인지 몰라도 거신은 결국 광선 쏘기를 멈추었다. 고개를 그에게서 돌리고, 거신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조종간에 온 관심을 쏟았다. 사냥감에게 접근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살아 있는 기분이었다... 살아 있고, 저 저주받은 괴수를 저세상으로 보내기 직전이었다. 몇 분 후면 거신은 그의 공성 전차 옆에 새겨진 표시 신세가 될 터였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표시가. 공성 전차를 조종한 그 오랜 세월 동안, 마리우스는 한 번도 거신을 처치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러길 갈망하고 있었다.

적이 있는 방향을 대충 조준해, 그는 짧게 한 방을 날렸다. 포탄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거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 떨어졌다. 어차피 거신의 주의를 끌고 싶었을 뿐이다. 놈이 다시 광선을 쏘기 시작해야,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이기 전에 놈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도 될지 알 수 있으니까.

마리우스는 거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거신의 열 광선은 그의 2 연장 80mm 포가 발사되기 전에 전차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공성포만이 저 보행 로봇을 쓰러뜨릴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몰니르 대포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마리우스는 그걸 다루는 데 전문가였다.

계산하느라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다... 경험 많은 조종사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리와 사거리 예측. 하지만

거신은 광선을 쏘지 않았다. 뒤틀린 다리의 잔해를 질질 끌며, 성큼성큼 계속해서 전진했다. 보행

로봇에게서는 공포도,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추격이 시작한 이래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다. 인간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거신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보는 거신은

다시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해 보였다.

마리우스는 스위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공성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 장치들을 끄는 것이었다. 전차는

가차없이 돌진하며 시시각각 그의 전리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 거신이 머리를 돌릴 때까지. 그리고 그는 행동했다.

마리우스가 전차를 최고 속도에서 갑자기 정지시키자 흠과 금속이 마찰하는 끔찍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단단히 다져진 흠바닥 위에서 활주하며, 아크라이트 전차는 50 미터는 족히 옆으로 미끄러지다가 마침내

멈췄다. 붉은 흠먼지가 모든 것을 덮었다. 전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마리우스는 익숙한 버튼과 레버들을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그의 아래에서 전차가 솟아올랐다. 압력이 발생하는 불길한 쉿 소리가 나며 전차

지지대가 뻗쳐 나와, 바싹 마른 딱딱한 흠바닥에 무겁게 내리꽂혔다. 애타는 몇 초 동안, 그는 잠금 해제

메커니즘이 다 돌아가는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준비 완료 표시등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 공성 모드가 완전히 활성화되었음을 알렸다.

전차가 멈춰 서자 거신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이미 보행 로봇이 잡힌 표적 획득 컴퓨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HUD 양쪽에서 정보가 연이어 출력되며, 다양한 탄도와 가능한 보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장거리 포 조종간을 쥐고,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거신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땅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거신이 다시 광선을 쏘기 시작해, 안전한 전차 바깥에서 붉고 노란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상한 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간질였다... 오존이 타는 냄새였다. 동시에 그의 팔에 있는

모든 털이 곤두섰다. 전차 너머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화면을 보니 거신을 조준하는 십자선이 물니르 포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마리우스의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던 대로 일을 해치웠다. 눈으로. 배짱으로. 본능으로.

그는 발사했다.

아크라이트 전차의 총격포가 우레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마리우스는 조종간을 놓고 즉시 앞으로 뛰어올라, 먼지투성이 창에 코를 붙였다. 일 초가 흘렀다. 이 초가...

눈부신 폭발이 장관으로 펼쳐졌다. 초고온 120mm 포탄이 동체를 파고들자 거신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거신은 위태롭게 서서 균형을 되찾는가 싶더니 완전히 쓰러졌다. 몸체가 땅에 부딪히며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아름다웠던 보행 로봇을 수백 개의 빛나는 조각으로 분해해 버렸다.

마리우스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처치의 황홀경에 푹 빠져 몸이 얼얼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 언제나 그랬다. 그 차갑고 혹독한 인생에서, 이런 순간만이 그에게 남은 모든 것이었다.

족히 일 분 동안 마리우스는 그냥 눈을 감은 채 거기 누워 있었다. 땀으로 축축해진 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하지만 뭔지 모를 경보 소리가 그를 무아지경에서 끌어냈다. 눈을 뜨자, 콘솔에 있는 모든 표시등의 반 정도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수히 많은 새로운 정보가 HUD 를 가로질렀다. 마리우스는 벌떡 일어났다. 창으로 내다본 광경에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추적자였다. 수십 마리는 돼 보였다. 산산이 조각난 거신 뒤의 지평선에 프로토스 군대가 점점 나타나고 있었다. 모두 마리우스 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었다. 작은 보행 로봇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소용돌이치는 먼지 기둥을 여러 개 차올렸다. 게다가 그들의 앞쪽으로, 마리우스와 더 가까운 위치에 무시무시한 불멸자들의 거대한 몸체도 보였다.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움직여 전차의 공성 모드를 해제할 일련의 명령을 입력했다. 불멸자들은 완벽한 평지를 쟁쟁하게 달려 그에게 돌진하고 있었다. 이 속도면 일 분도 안 돼 마리우스에게 도착할 것 같았다. 젠장,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귀중한 몇 초가 흘러갔다. 기다림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발밑에서 전차가 움직이지 않자, 마리우스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뒤쪽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HUD 를 보니, 전차 홀로그램에서 지지대 부분이 빨강게 빛나고 있었다.

고장 난 것이다.

추진력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머릿속에서 시오네의 비웃음이 들렸다. 마음의 눈으로 마리우스는 친구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일을 벌이기엔 너도 너무 늙었다고, 이 친구야.*

다른 것들은 전부 잊고 마리우스는 엄지손가락으로 해제 버튼을 내리눌렀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전차를 공성 모드로 고정해 주었던 빠죽한 쇠덩이는 여전히 흙바닥에 짝 박혀 있었다. 마리우스는 무력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다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몸이 좀 떨어왔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고 나니 긴장했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전차가 움직였다. 지지대가 접히며 압력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불빛들이 녹색으로 반짝이고 캐터필러가 다시 땅에 닿았다. 닿는 순간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재빨리 기어를 올리며 방향을 돌려, 먼지 이는 평원을 가르기 시작했다. 후방 HUD 는 프로토스 군대로 점철되어 있었다. 표적 획득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들을 잡아, 다가오는 적 하나하나를 추적하며 짜증나는 뽁뽁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동시에 마이크를 켰다.

"아크라이트 2717, 블랙우드 대위다. 내 말 들리나?"

마리우스는 헤드셋 음소거를 해제하고 앞쪽 통신기의 음량을 올렸다.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맥스웰 중령님, 블랙우드입니다. 복귀 중입니다. 제 말 안 들리십니까?"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HUD 를 통해, 마리우스는 불멸자들의 첫 번째 공격이 그의 뒤로 꽤 떨어진 곳에 꽂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거리 표시기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추적자들이 앞으로 점멸한 것이다. 이제 놈들은 불멸자 바로 뒤에 있었고,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너무 빨랐다.

"그웬!" 마리우스는 중령의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두 번째 공격입니다!

추적자가 잔뜩 몰려옵니다. 불멸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추적자보다 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중령님! 아무도 없습니까?! 제 말 안 들리니까? 모든 비상 주파수로 통신을..."

흙바닥에 깊이 파인 홈 위를 전차가 지나가 마리우스의 몸이 앞으로 확 쓸렸다. 그의 소중한 거신이 남긴 작별 선물이었다. 앞을 흘끗 쳐다보며, 마리우스는 다른 틈새를 피해서 전차를 모는 데 집중했다.

또 다른 폭발이 전차를 밝혔다. 이번엔 전방 어딘가에 떨어진 것 같았다. 추적자들의 사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의 시간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군. 마리우스는 생각했다. 이렇게 끝장이 나는 것이다. 거신이 그가 처치한 마지막 적일 것이다... 망각의 하수구로 떠내려가기 전에 즐기는 마지막 맥주이다. 정말 웃기게도 들어맞았다.

절벽 가장자리가 지형 표시기에 나타났다. 아직도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잠깐 동안 그는 전차를 최고 속도로 절벽으로 몰아, 저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하늘에 자신을 내던져 스스로 끝을 맺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아니, 그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방향을 돌려 싸우는 게 그에게 맞을 것이다. 전차가 한계에 다다랐어도 마리우스는 꽤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적어도 저 보행 로봇 한두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때, 앞쪽 하늘에 불빛이 하나 나타났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고, 그가 빠르게 거리를 좁혀감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스포트라이트였다. 수송선에서 나오는 스포트라이트였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마리우스는 부서지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로 세계 조종간을 내리쳤다. 하지만 전차는 이미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먼지 이는 땅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걸 보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G-226 조종사는 부드럽게 마리우스와 열을 맞췄다. 하늘에서 수송선이 내려오면서 엔진이 아래쪽으로 회전했다. 그는 정면으로 수송선에 접근했다. 추적자들이 주위에 마구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리우스는 그를 맞이하러 수송선 진입판이 바위투성이 절벽 가장자리에 내려오며 열리는 것을 보았다.

뒤쪽 오른편에서 폭발이 일어나 그의 전차가 옆으로 튕겨났다. 즉시 마리우스는 전차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지나치게 애쓴 탓에 잠시 위태롭게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그것도 바로잡았다.

안 돼! 그는 미친 듯이 생각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해내기 직전이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희망이 그 단단한 손아귀로 마리우스를 움켜쥐었다. 지금까지 헤쳐온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수송선이 땅에 가까워지면서 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다.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리우스는 조종간을 늦추기 시작했다.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단 한 번의 미끄러짐이 그를 수송선 옆으로 보내고, 두 금속 덩어리가 하나로 엉켜 절벽을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돌연 수송선이 내려왔다. 착륙 장치가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속도를 줄이고 감속에만 집중했다. 이를 악물고 그는 전차를 진입판으로, G-226 격납고로 똑바로 몰았다. 브레이크를 밟고, 마구 흔들리며 멈춰서고, 자기력 잠금장치 안에 아크라이트 전차 캐터필러를 끼웠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과 함께 수송선 조종사가 기체를 띄워 기이한 분홍색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깥에서는 열 기 이상의 추적자가 수송선을 파괴하려고 분열기를 마구 발사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급속도로 희미해지고 멀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절벽에서 날아간 덕에 수송선은 거의 즉시 적과 분리되었다. 모두 끝났다.

마리우스는 일어나서 해치를 열었다.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전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탐욕스럽게, 굶주린 듯 그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이렇게 훌륭한 공기는 여태껏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마리우스는 밖으로 기어나와 아크라이트 전차 꼭대기에 큰 대자로 엎드렸다. 차가운 공기가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어루만졌고, 몸 아래 전차는 따뜻했다.

수송선 격납고의 밝은 조명을 받으며 그는 피곤한 눈을 감았다. 고요함은 일 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블랙우드 대위님," 위쪽 어딘가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송선의 조종사였다. 마리우스는 전차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장화가 골이 진 금속 바닥에 닿자 다리 힘이 짝 빠졌다. 그는 마구 움찔거리며 다리를 쭉 뻗었다. 딱딱하게 굳은 양쪽 무릎에서 똑 소리가 났다.

"긴장 풀고 편히 쉬십쇼, 대위님." 조종사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부터 기지까지 대기 상태 좋습니다. 금방 모셔다 드릴 테니, 담배 있으면 담배나 태우시죠."

무심코 마리우스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꾸깃꾸깃해진 시가 반쪽을 꺼냈다. 그리고 전차 주변을 돌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중령님한테 내가 얼굴 보면 키스해 드리겠다고 전해!" 그는 텅 빈 G-226 격납고에서 소리쳤다. 목소리가 매끄러운 금속 벽에 반사되어 울렸다. "군사재판 받든지 말든지!"

조종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할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마리우스는 라이트를 찾아 몸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어쨌든 시가를 입에 물고 지그시 깨물었다.

아크라이트 전차 뒤쪽을 지나다가, 그는 멈췄다. 후방 장갑이 완전히 뜯겨나가 있었다. 작은 조각 몇 개만 추적자의 공격에 의해 뒤틀리고 일그러진 채 겨우 붙어 있었다. 가장자리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극심한 열기 때문에 부분부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조심조심 몸을 앞으로 기울여, 과열된 금속으로 시가에 불을 붙였다.

반대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처치 기록은 아직 거기 있었다.

마리우스는 그곳에 손을 가져가 어루만지며, 신소재 강철에 그 표시들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느꼈다.

길고 긴 표시들을 지나, 매끄러운 빈 공간에 손이 닿았다.

거신이 차지할 자리였다. 마침내.

무시무시한 광 소리가 들렸다. 수송선이 아슬아슬하게 한쪽으로 쏠리고, 마리우스는 무릎을 꿇으며 땅에 손을 짚고 넘어졌다. 무릎이 다시 두둑거리며 고통이 다리를 꿰뚫었다. 전차 캐터필러를 움켜잡으며, 마리우스는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다시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어찌나 소리가 큰지 귀가 멍멍했다. 수송선은 꼬리 부분이 떨리며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끔찍한 각도로 기수를 아래로 향한 채 떨어졌다. 마리우스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인형처럼 무력하게 격납고 안에 내팽개쳐졌다.

푸르고 하얀 섬광이 번쩍이고, 뒤이어 엄청난 연기가 물려들었다. 마리우스는 동체에 뚫린 구멍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며 잡을 것을 찾아 버둥거렸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잠시 후, 수송선 안은 강철이 강철에서 뜯겨나가는 지독한 소리로 가득 찼다. 마리우스 아래에서 바닥이 떨어져 내리고, 발밑이 텅 비었다. 그리고 그는 역겨울 정도로 분홍빛인 하늘로 내던져졌다. 빙글빙글 돌며 떨어져 내렸다. 마리우스는 팔다리를 뻗치고 헛되이 저항하다, 불가피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몸 아래에서 빠르게 떨어져 내리는, 공성 전차의 거대한 형체였다...

마리우스는 떨어지며 손톱만큼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다. 평온함이었다. 자유로움이었다.

마리우스는 미소 지었다.

착륙하는 불사조 아래에서 먼지 구름이 휘몰아쳤다.

쉴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열렸다. 프로토스 조종사가 몸을 일으켜, 테란 수송선의 엉망이 된 잔해 쪽으로 기어 내려갔다. 정지한 공기 중에 그 파편들이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한쪽에는 공성 전차의 포탑이 갈라진 흙바닥에 파묻혀 있었다. 전쟁 병기의 뒤틀린 포신이 반항하듯 하늘을 겨누고 있었다.

조종사는 몸을 굽혀 불타는 잔해에서 하얗게 달아오른 신소재 강철 파편을 주워들었다. 장갑 안에 쥔 금속 조각에서 그는 이 인간이 거둔 승리를 나타내는 조잡한 표시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프로토스는 엄숙하게 경의를 표시하며 고개를 숙였다. 종족과 언어를 초월한 행동이었다. 그는 이 전사를 이해했다.

아니, 전사가 아니다. 형제다.

비행기로 돌아간 조종사는 그 뾰족한 금속 조각으로 자기 기체에 다른 표식들과 나란히 새 표식을 새겨 넣었다.

그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전리품을 갈라진 붉은 땅에 버리고, 하늘로 날아올랐다.